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 '정국 수습' 입장차 확인

권 "정치 공세적 성격 탄핵은 철회해야"
李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의 복귀"
공개 발언·비공개 대화 등 40분간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 수습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얘기를 나눴다. 이날 만남은 권 권한대행이 최근 원내대표에 뽑힌 뒤 야당 대표 예방 차원의 첫 회동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최저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현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북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현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며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이 마비 상태니까 그것도 풀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권한대행은 3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 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부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 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권한대행을 대표실에서 맞은 이재명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정치적 본연의 역할"이라며 "현재는 좀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 돼버린 상황이다.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 이 대표는 "(권 권한대행이)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필요한 부분까지는 저희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도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한다. 적정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에 매몰돼 경제 부문에 대한 정부 책임이 미약했다

고 생각한다. 조속히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개발언 이후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비공개로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총 40여분간 이뤄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권 권한대행은 반대체특별법 등을 조속히 정리하자 제안했고, 이 대표도 검토 중이라고 화답했다"며 "현재 상황과 관련해 정치적 투쟁이 있지만 국민들 보기에 합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권 권한대행이 당 의원총회에서 한번 더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우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합당"

"대통령, 국회 선출 재판관 형식적 임명권...실질 권한 국회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보낸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입법조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우의장, '계엄 국조특위' 여야 명단 제출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답변 시한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조사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김진수 기자

국힘 김상욱 "윤석열, 보수 아닌 극우주의자"

"尹과 가까웠던 사람이 당 리더 되면 안돼"
유승민 "자기들끼리 권력투쟁...망하는 것"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국회 본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18일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는 비상계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생각,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자체가 극우적 가치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어쩌다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극우 사상에 심취해 자기 생각과 맞는 극우주의자들을 옆에 끼고 극우가 마치 보수인 양 만들어왔다"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보수당 안에 극우라는 암이 자리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부터 먼저 고쳐야 한다"며 "정통 보수당으로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

로 재건되고 극우라는 암 덩어리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명백한 내란"이라며 "헌정질서 문란을 목적으로 무장 군인을 국회 내에 투입했다. 대법원 판례나 기타 모든 입법례를 보더라도 내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 대통령과 성향을 공유했던 사람, 이번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며 "당이 완전히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하면 이재명한테 정권을 갖다 바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잘못했으니까 탄핵을 당하는 것인데 8년 전 탄핵하다 똑똑 망했으니 이번에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단세포적인 논리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진수 기자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상무

Gwangju Youth Job Station | Youth Cafe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동양빌딩 9층) ☞ 15세 이상 39세 이하 누구나 ☞ 전액무료 및 간식제공

진로찾기 프로그램
맞는 진로 적성을 찾고 싶어요.

경력설계 프로그램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고 싶어요.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고용정책 청년:UP
맞춤형 지원으로 UP성장

일상지원 프로그램
취업에 필요한 내적 성장을 하고 싶어요.

창업 및 디지털교육
스타트업, 디지털 기술 등 실용적인 것이 필요해요.

취업상담, 심리상담
(취업)상담을 받아 보고 싶어요.
(심리)위로와 고민상담이 필요해요.

다양한 워데이클래스
재미있는 워데이클래스에 참여하고 싶어요.



<https://jobstation062.modoo.at/>
(062) 375-1537-9



